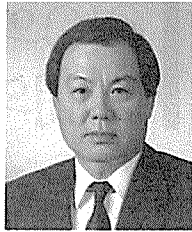


## ■ 청어가 살아 있는 이유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서 돌아와 보면 항상 죽은 고기를 팔게 되어 많은 값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날 한 배에서 내려진 청어들을 보니 팔딱 팔딱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가격도 좋게 받아 남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궁금하게 생각한 어부들이 비밀을 캐어보니 그 배의 어부는 잡은 청어들속에 천적인 바다메기를 두마리 물에 넣은 것이었다. 몇 마리 잡혀 먹더라도 나머지 고기들이 살아 있으니 그 이유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었다.

청어만큼 절대절명의 위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때때로 커다란 암초앞에서 난감해 하며 고통을 받곤 한다. 그러나 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긴장과 함께 생활해 나가는데 새로운 원기와 활력을 준다. 스트레스의 역기능이 순기능으로 변화되는 순간이다. 인간에게 순탄한 시간만이 이어진다면 그는 곧 나태와 태만, 권태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 버리게 될 것이다. 기업과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다. 2년 전부터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나라간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의 압력을 받고 있다. 반면 유럽공동체(EC)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다 하여 각 지역별로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담을 높이 쌓아가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안 후발도상국들의 발빠른 기세에 당황해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당황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대항할 방법을 찾



金 鈺洙

(주)에스티엠 전무이사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 “제2의 일본”으로 주목을 받으며 만들어 놓으면 팔린다는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의 성장을 영속시켜 줄 수 있는 알맞은 환경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어리숙한 희망 뿐이었다. 이것은 분명 오늘의 우리앞에 커다란 암초가 놓여 있게 된 원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청어처럼 살아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 고난은 반드시 더 큰 기회를 뒤에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현재 우리 정보산업계는 매년 고도성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나태해질 만큼 풍요로운 시설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신종 유망 산업이지만 이 곳에도 나태해질 만한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 매년 그 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속이 붙어서 황금알 낳는 거위를 생각하여 안이하게 앉아서 주위담을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즐길 때가 아니고 달릴 때이다. 업계는 끊임없는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시설확충 등 선두자를 계속 해야될 시기이다. 외형을 늘이기 위한 덤핑수주나 다 벌려놓은 상차려 먹기식의 안이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우리가 나태해질 만큼 성장해 버리기 전에 우리 앞에 놓인 전문인력 부족, 첨단기술 부재, 국산자원의 후진성 등 절대절명의 천적 앞에서 똑바로 깨어 어디서나 뛰며 뛰어 올라야 한다. 청어가 살아있는 이유는 천적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이다.